

한국체육정책학회지, 2020. 8, 제18권, 제3호, pp. 161~177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2020. 8, Vol. 18, No. 3, pp. 161~177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성하* (대한체육회 대리)

I. 서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 이미지 쇄신 및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국가주도의 엘리트체육 활성화사업을 펼쳐왔다. 그 결과 1980년~1990년대 국제스포츠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 왔으며, 1988 서울하계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까지 개최하면서 "스포츠코리아"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국제스포츠계에 각인시켜왔다. 국가주도의 엘리트 스포츠 성장과 활성화를 통해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배출되었고, 또한 우수 성적도 거두어 왔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스포츠 육성시스템에 대해서는 선수의 학습권, 인권문제 및 엘리트 선수 수급, 선수저변 약화 등의 문제들로 인해 무수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로의 스포츠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전환되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정부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

및 국민건강보험료 증가 등의 사안으로 인해 그 해결책의 하나로 생활체육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이러한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 해결과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설립, 육성하는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공공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 또는 "클럽"과 동일) 사업은 2013년 (구)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기관으로서 실시한 사업으로 올해로 8년째 실시되어 오고 있다. 현재는 체육단체 통합¹⁾으로 인해 대한체육회가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20년 4월 기준 전국에 100개 클럽이 선정되어 사업 시작 8년차 만에 전국 공공스포츠클럽 100개 시대를 열게 되었다(대한체육회, 2020).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체육동호인조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성인 남성, 경기 중심, 단일 종목 위주 동호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동호회 중심의 생활체육 종목이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 일부 종목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핵심어: 공공스포츠클럽, 사업구조, 문제점, 개선방안, 질적연구, 심층면담

* e-mail: simonkim@sports.or.kr

1) 2016년 3월 체육단체 통합으로 인해 (구)국민생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하나의 단체로 통합됨.

동호회 가입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나 여성, 유·청소년 등 생활체육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대한체육회, 2019b). 또한 유·청소년에서부터 청년, 성인,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하고,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부족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기반을 잃어가는 학교운동부 문제가 체육계 골칫거리 문제가 되었고, 엘리트 선수 육성방향의 다원화와 학교 일반체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었다(대한체육회, 2018a).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은 각자의 관심과 흥미에 맞추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지역주민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여성 및 노인 등 다세대·다계층·다연령이 한데 어우러져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회원들에 우수 지도자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전문체육과도 연계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대한체육회, 2019a).

2000년대 들어오면서 청소년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등이 차례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스포츠클럽이 스포츠계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후 스포츠클럽 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로는 클럽스포츠 정착을 위한 한국 스포츠의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채재성, 김현석, 2000),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행정조직의 역할 및 발전방안 연구(김성국, 2005), 스포츠클럽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안 연구(성문정, 2005),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클럽스포츠 육성방안 연구(정영린, 2006), 공공스포츠클럽 사례를 통해 본 협력적 거버넌스 가능성과 한계(김선희, 전형상, 2014),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황수현, 김민, 서희진, 2015), 공공스포츠클럽 내부마케팅, 조직신뢰,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의 관계(오갑진, 김주호, 2018),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정책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전원재, 임수원, 2018), 조직역량 관점에서 분석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의 난제(남상우, 2019) 등이 있다.

이처럼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점은 본 사업이 활성화되고 보다 성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며 우리나라 체육 생태계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동호인클럽 등 일반적인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위주의 연구가 많으며 공공스포츠클럽에 관한 선행 연구 또한 스포츠클럽 사업의 현황, 육성 또는 활성화 방안, 마케팅, 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정책, 제도 등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연구가 대다수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담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개선방안 제시가 약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현재 제시되는 문제점들 중 운영과 수행 부분에서 드러나는 점이 많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실행을 위한 설계,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내실을 다짐으로서 클럽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본 연구의 필요성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및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 등 공공스포츠클럽 주요 운영인력들을 통해 해당 사업의 운영체계 및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준거적 선택방법에 의거 첫째,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할 경험이 있는 대한체육회 또는 지역 체육회(시·도 또는 시·군·구) 실무자이거나 공공스포츠클럽에 고용되어 클럽에서 근무한 사무경험이 있는 자, 둘째, 국내 체육행정의 흐름과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자, 셋째, 연구자와의 심층면담이 가능해야 하며, 연구를 위해 협조가 가능한 자로 구성된 12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이들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한 구술 자료를 본 논문의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공모부

터 선정, 육성과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사업담당자 2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대한체육회의 사업 조력자로서 여러 군은 일을 도맡아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도 체육회 직원 2명도 포함하였다. 또한 이 사업의 중심인 공공스포츠클럽의 사무국장, 행정직원, 지도자 등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고 있는 클럽 관계자 6명을 연구참여자로 포함시켜 사업에 대해 클럽 직원이 바라보는 관점을 담아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단위 지방체육회(시·군·구) 직원 2명도 보조 연구참여자로 포함시켜 공공스포츠클럽을 바라보는 제3자적 관점을 담아내 보고자 하였다. 지역별로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연구참여자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형(농어촌 포함) 업무 담당자들을 골고루 분배하여 참여시켰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면담 전 비공식적 대화형 면담(Patton, 2002)형태로 개인별 1회 약 30분간 예비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자료를 토대로 본 면담의 범위와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면담은 2020년 2월 6일~2020년 3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반구조화된 면담과 비구조화된 면담을 혼용하여 개인별 약 40~60분 정도 실시하였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은 자에 대해서만 녹취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순번	성명	성별	나이	소속	경력	주요업무	기타
1	김서울	여	40세	대한체육회	10년	공공스포츠클럽 관리 및 교육, 평가 등	
2	이부산	남	35세	대한체육회	6년	공공스포츠클럽 관리 및 공모, 클럽 주관 각종대회 등	
3	박대구	남	58세	시·도체육회	27년	공공스포츠클럽 관리 및 평가 업무 등	
4	서광주	남	31세	시·도체육회	3년	공공스포츠클럽 관리 및 평가 업무 등	
5	조대전	남	48세	공공스포츠클럽	6년	공공스포츠클럽 사무국 업무 총괄	
6	송인천	남	52세	공공스포츠클럽	4년	공공스포츠클럽 사무국 업무 총괄	
7	한울산	여	45세	공공스포츠클럽	6년	클럽 강사관리, 회원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8	김경남	남	46세	공공스포츠클럽	7년	클럽 강사관리, 회원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9	정경복	여	43세	공공스포츠클럽	4년	클럽 강사관리, 회원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10	심충남	여	38세	공공스포츠클럽	3년	스포츠클럽 회원가습 및 프로그램 운영	
11	임전복	여	51세	시·군·구체육회	22년	관내 스포츠클럽 행정지원 및 사업비 정산 등	보조참여자
12	배강원	남	47세	시·군·구체육회	16년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스포츠클럽 지원 등	보조참여자

※ 연구참여자는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수도권 및 지방 등 지역 표시는 연구참여자들이 원치 않음에 따라 미표기

표 2. 기본적인 면담범위 및 내용

면담 범위	면담 내용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구조적 문제	공공스포츠클럽 사업구조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있어서의 문제점(에로사항)
	공공스포츠클럽 사업구조 관련 구조상 특성 관련 문제점(에로사항)
	공공스포츠클럽 사업구조 관련 사업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의 문제점(에로사항)
	공공스포츠클럽 사업구조 관련 클럽에 부여된 지위 및 역할상의 문제점(에로사항)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추진방향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육성방향)
	공공스포츠클럽 사업구조 특성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공공스포츠클럽 사업관리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 관련 개선방안(활성화 방향)
	공공스포츠클럽 사업구조 중 클럽의 지위 및 역할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의 범위와 내용은 <표 2>와 같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텍스트 분석(textual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 1과정은 전사 작업 단계이다. 심층면담으로 얻은 내용은 후속분석 등 필요한 작업을 위해 컴퓨터에 기록하였다.

제 2과정은 주제별 약호화의 개발과 적용단계이다. 전사된 자료를 읽은 후 텍스트 내용의 의미를 함축해 줄 수 있는 주제어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코딩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료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재배열하였다.

제 3과정은 분석과정의 마지막으로 주제 및 의미 생성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약호화된 자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범주와 의미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4. 자료의 타당성 및 진실성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타당성 및 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포츠사회학 전공 박사 두 명을 섭외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자료분석의 과정에 참여한 후 최종적으로 테마를 수립 및 도출하는 연구자 삼각검증의 과정(Denzin,

1989)을 거쳤고, 이들과 협의를 실시하여 데이터 분석과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을 통해 분석된 내용들을 연구참여자와 공유하여 이 들로부터 의미 있는 피드백을 받는 구성원 간 검토의 과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풍부한 데이터로부터 연구참여자의 반응과 상황적 요인 들을 세밀하게 기술하는 심층적 기술 또한 실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모든 연구결과들이 객관적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자 모든 데이터를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관 및 재검토하는 감사추적을 실시하였다.(Lincoln & Guba, 1985).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 들을 통해 본 연구의 타당성과 진실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Maxwell, 2005).

5. 연구의 윤리성

연구를 시작하면서 연구참여자와 보조참여자 모두에게 연구의 목적을 정확히 알렸으며, 협조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고 면담 내용을 녹취하는데 있어서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가 불가능할 시에는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한 면담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연구참여자들이 속한 지역에 대한 부분은 본 논문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음에 따라 표시하지 않았다.

Ⅲ.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2013년 처음 실시된 이후 매년 실시되는 공모설명회와 각종 홍보들을 통해 지자체, 지역 체육단체들이 정보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와 클럽 선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대한체육회, 2019a). 2013년 9개를 최초로 선정한 이후, 2014년 9개, 2015년 12개, 2016년 6개, 2017년 19개, 2018년 21개, 2019년 22개, 2020년 3월 2개 등 총 100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이 선정되어 오며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은 활성화되고 발전하고 있다(대한체육회, 2020).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클럽을 통해 지역주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이 가능하고, 클럽이 지역의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스포츠 사랑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 운동선수 육성의 대안이 되고, 체육인 일자리 창출,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체육 시설의 공유, 소외계층을 위한 개방적 스포츠 서비스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대한체육회, 2019b).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각 지자체, 학교 등 시설 및 매칭지원 주체의 사업 신청으로부터 시작된다. 대한체육회는 연간 1~3회 정도의 공공스포츠클럽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 학교 및 체육관련단체 등이 스포츠클럽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 시 신청 유형에 따라 대도시형(5종목 이상 운영), 중소도시형(3종목 이상 운영) 그리고 한종목형(1종목 이상 운영)²⁾으로 구분

2) 한종목형(학교연계형)스포츠클럽은 '20년부터 도

된다. 지원기간은 3년(20년부터 5년)으로 운영되어 왔으며³⁾, 지원금액은 총액 기준으로 대도시형은 9억, 중소도시형은 6억, 한종목형은 4억이다(대한체육회, 2020).

표 3.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모델 유형

구분	지원액	인구수	운영가능종목
대도시형	5년간 9억지원	20만이상	5종목 이상
중소도시형	5년간 6억지원	20만미만	3종목 이상
학교연계형	5년간 4억지원	-	1종목 이상

* 대한체육회(2020)을 바탕으로 재구성

사업의 구조에 따르면 사업신청 시, 신청주체는 반드시 스포츠클럽 시설로 상시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을 1개 이상 위탁 또는 소유형태로 확보하여야 하고, 국고 지원금에 따른 지자체 또는 신청주체의 매칭지원금⁴⁾을 확보하여서 신청하여야 한다(대한체육회, 2019a).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이렇듯 중앙과 지방의 양방향 재원이 공동으로 투입되는 매칭형 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에서 시드머니(Seed money)를 지원하여 스포츠클럽이 설립되어 자리를 잡아갈 때까지 지원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클럽이 회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역 내 자리를 잡게 되면,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포츠클럽이 자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로 8년차를 맞는 스포츠클럽 사업은 그간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과 클럽들의

입되는 신규모형임.

- 3) '20년도 신규 공모부터 국고 지원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지원금액은 3년 지원금액과 동일함.
- 4) 대도시 및 중소도시형의 경우, 기금 지원총액의 10%이상, 한종목형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이상 매칭지원금이 확보되어야 함.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크게 성장해 온 결과 100개 클럽 시대를 열었지만,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시시각각 변해가는 지역 환경들로 인하여 사업 활성화와 발전에는 여전히 많은 위협요소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클럽의 장기간 체육시설 사용 담보가 불투명하여 지속 운영여부가 불확실하며, 지자체 등 신청 및 재정지원 협약주체가 약속이행을 하지 않음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자체 적립률이 높지 않아 재정자립이 어렵고, 스포츠클럽 자체의 불명확한 정체성에 따른 외부 체육유관 단체들의 위협도 잇따르고 있다(대한체육회, 2019b).

이러한 위협요소와 더불어 공공스포츠클럽 사업구조에 따른 추진 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수행과 평가, 일률적인 사업진행과 관리주체의 부재, 불명확한 공공스포츠클럽 기능과 역할 등 사업설계 시 제시된 방식과 사업구조 상의 문제점들도 사업 발전 동력을 저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공공스포츠클럽사업의 수행과 평가, 관리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공성 vs 수익성(재정자립)

공공스포츠클럽의 특징이자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회원이 공공체육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전원재, 임수원, 2018). 이에 따라 대부분 공공스포츠클럽의 회비(강습료)는 지역 현황에 따라 상이하되 민간 대비 7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형성된다(대한체육회, 2018b). 이렇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문제는 클럽이 설립되고 나서 3년~5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기간이 끝날 때를 대비하여 회비 수익금 등을 통해 자체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구조에 따라 사업공모부터 운영까지 지속적으로 클럽 운영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다. 회원을 상시 700~1000명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대 사이즈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야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회원 수 300~400명 이하의 중소형 스포츠클럽의 경우 기금 지원이 종료되면 클럽 운영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공공스포츠클럽 성과평가에도 클럽의 자체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평가 지표로 포함되어 있어 클럽들은 수익성고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대한체육회, 2019b).

저렴한 회비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부담 없이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공성은 공공스포츠클럽 고유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렴한 회비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물가와 공공요금들이 매년 인상되는 만큼 회비를 인상할 수가 없어서 클럽의 수익구조에 무리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48세, 조대전).

지역 내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되는 공공스포츠클럽은 저렴한 회비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명에 육박하는 회원을 보유한 클럽이 아닌 300명 전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클럽은 회비로 수익을 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금지원이 종료되고 나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발생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클럽의 자립 및 생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8세, 심충남).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나타나듯이 공공성은 공공스포츠클럽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사

업 내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일정기간 정부 기금지원이 종료된 후 자립해서 운영해야 되는 클럽 입장에서 수익구조를 보전해 줄 만큼의 회원 수 확보가 어려울 경우, 클럽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공공스포츠클럽으로서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올리며 재정자립을 해야 되는 사업 설계 구조는 모순적이다.

2.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사업

우리나라는 엄연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국토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각 지방마다 고유의 환경과 문화가 존재함에 따라 지역마다 차이점이 존재한다. 229개 시·군·구 저마다 인구수와 구성, 지역 환경 등에 따라 정책을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다른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중앙정부, 즉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를 들면, 공공스포츠클럽의 법인 형태인 체육관련 비영리사단법인의 기본 재산금의 경우, 사업 설계에 따르면 최대 5천만원을 기본 재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지만, 17개 광역자치체 실정은 기본 재산금 없이 법인 설립가능한 곳부터 최대 1억원을 요구하는 곳까지 굉장한 차이가 존재한다(대한체육회, 2020). 법인 설립의 단계부터 애로사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각 지자체 소관의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지자체가 아닌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등 중앙 행정기관 주도의 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기본적인 사업목적이나 취지 등 전반적인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겠지만, 사업주요 수행자나 시설, 회원구성 및 회원 수에 따라 클럽 운

영실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역적인 상이함에 대한 고려 없이 공공스포츠클럽의 공모 선정부터 클럽의 운영에 대한 가이드 제시, 성과에 대한 평가까지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점은 사업 구조상의 문제점이다.

클럽 공모신청 기준에 맞추어 들어가는 것이 사실 지방단체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모든 클럽을 다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전국에서 모두 신청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31세, 서광주).

클럽 선정 후, 운영을 하다보면 중앙에서 제시한 운영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이 저희 실정이랑 안 맞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대도시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소도시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50세, 송인찬).

본 사업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체육시설이다. 특정 스포츠종목을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만들어진 데에는 각 지역마다 배경이 있다. 예를 들어, 복싱이 유명한 영주는 복싱장이, 씨름이 유명한 마산에는 씨름장이, 여성 및 노인인구가 많은 곳에는 수영장 이 들어서는 등 각 지역마다 특정 공공체육시설 이 들어서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이러한 종목이 가진 특성과 그 지역의 특징이 있음에도 그 특수성보다는 공모 신청 당시의 조건과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운영을 중요시 여기고, 이에 대한 실적 평가까지 진행하는 사업구조는 지방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클럽이 있는 지역은 소도시에 인구가 많지 않고 노인인구도 많은 편입니다. 또 클럽위

치가 인구밀집지역도 아니라 교통도 원만하지 않아요. 중앙에서 제시하는 회원목표 수 달성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43세, 정경복).

3. 공공스포츠클럽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상급 기관 부재

공공스포츠클럽의 공모 신청 조건에 따르면, 스포츠클럽 공모 선정 이후에는 반드시 별도의 비영리법인인 스포츠클럽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의 경우, 17개 광역지자체에 그 법인의 설립에 대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스포츠클럽은 설립된다(대한체육회, 2019a). 이렇듯 법인 설립의 구조상 광역지자체가 공공스포츠클럽의 주무관청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광역지자체와 공공스포츠클럽 간의 지원 및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신청 조건에 따라 기초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체육 시설과 매칭지원금을 가지고서 신청을 하고 또 실제 클럽이 속한 기초 지자체 지역 주민이 클럽 사업의 주요 수혜자가 됨에 따라 기초 지자체가 주무관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공식적으로 클럽을 선정하고 또 3~5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며 매년 클럽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까지 진행함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주무관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와 기초지자체가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공공스포츠클럽의 주무관청은 아니다.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관(官)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임에도 명확한 상급기관이 존재하

지 않음은 사업구조상의 문제점 중 하나다.

공공스포츠클럽은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하고 설립에서 초~중기 운영까지 대부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추진되기 때문에 관의 도움 없이는 안정과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체육회 지원금이 종료되고, 지자체 선거 등으로 인해 지자체 지원의지가 없어져버리면 클럽은 생존 문제에 마주하게 됩니다. 클럽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지원을 해줄 상급기관이 없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45세, 한울산).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제기자들이 대한체육회로 연락을 많이 주는데 클럽의 인사문제 등 법인사무에 까지 관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원 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제재나 관리가 가능하지만, 클럽의 관리감독에 대한 명확한 권한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기금지원종료 클럽에 대한 지속지원도 저희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부족합니다(40세, 김서울).

공공스포츠클럽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공공성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세대 간 통합 및 고용 창출 등 다른 장점들 또한 공공성 등 사회기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대한체육회, 2018a). 이렇듯 공공성을 바탕으로 지역 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이지만, 이들은 사업구조상 비영리법인이고 명확한 상급기관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지원이 필요한 시

기에 지원요청을 하더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때가 대부분이에요(50세, 송인천).

4. 공공스포츠클럽의 뚜렷한 정체성 부재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관리의 역할을 하고 우수 선수도 양성하며, 체육인 일자리 창출,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소외계층을 위한 개방적 서비스와 지역주민의 열린 사랑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사업의 주요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대한체육회, 2019a).

그러나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들은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강습사업을 실시하고, 대회도 개최해오고 있다. 또한 지자체들이 관내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직접운영 또는 지역 시설관리공단, 지역체육회 등에 위탁을 주어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도 많다. 공공스포츠클럽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무료사용 등을 통해 클럽이 운영하도록 해오고 있지만, 기존에 지역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해오고 있었던 지역의 경우는 클럽 공모 신청단계부터 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다. 이렇듯이 공공스포츠클럽의 주요 역할과 기능 등 정체성이 기존 지역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온 스포츠센터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사업설계와 구조상의 문제점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내 공공스포츠클럽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지만, 지역 내 많은 체육인들이 클럽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

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클럽이 하는 사업이 기존 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이 하던 사업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사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51세, 임전복).

공공스포츠클럽만의 고유한 특성이 없고 다른 단체들과 역할이 겹치다 보니, 지역 내 체육 단체들이 공공스포츠클럽을 자신들의 잠재적인 위협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다 클럽 선정 후 시설 운영을 클럽에 넘겨준 지역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클럽 고유의 사업목적을 정하여 역할과 기능을 기존단체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47세, 배강원).

이렇듯이 공공스포츠클럽만의 고유한 특성과 기능이 부재함에 따른 불편한 시각들이 체육인들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스포츠클럽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주민을 회원으로 받아 회원 수를 확대하고, 회원 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시키고 회원들로 하여금 소속감도 가지게 해야 한다(대한체육회, 2019a). 하지만, 공공스포츠클럽 설립 후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사업성격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심지어 클럽 회원조차도 본인이 스포츠센터의 회원인지 공공스포츠클럽의 회원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본 사업이 구조상 공공체육시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중심의 강습을 기본 플랫폼(platform)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공공스포츠클럽만의 성격이 아닌, 타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즉, 새로운 사업의 도입 시 새로운 특성과 역할, 기능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IV.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1. 공공성 지속을 위한 사업개편

앞서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클럽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올려야 하는 모순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수익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따라서 수익구조가 안정화될 수만 있다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구조이다. 다만, 사업이 아직 초창기인지라 공공스포츠클럽이 우리나라 스포츠계 생태계에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수익성 보전을 담보로 하여 공공성을 최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3~5년간의 단기 지원으로는 클럽의 안정적인 자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공스포츠클럽이 우리나라 체육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고, 보다 저렴한 강습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체육참여 장벽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스포츠클럽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등 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로 사회통합에 대한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체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때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철도나 항공, 항만 등 일부 민간 운영 교통노선이 적자가 나는 곳이 있지만, 정부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살려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 스포츠 클럽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금까지 3년간 기금지원을 받았는데, 3년 만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자생력을 갖춘 법인으로 성장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3~5년 정도 일부 재정지원이라도 더 받을 수만 있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클럽을 운영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36세, 이부산).

좋은 시설과 많은 숫자의 회원을 가진 클럽은 3~5년 만에 자립구조를 갖추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클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자리를 잡고, 활성화될 때까지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면,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45세, 한울산).

그렇다고 모든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 무작정 계속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느슨한 운영을 유발하여 사업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3~5년간 일정금액을 지원하면서 그 후속인 3~5년 정도 사업평가 등에 따라 일정기준이 충족되면 일부 운영비를 더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지원기간을 더 늘리되, 클럽들이 더욱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클럽들이 최대한 공공성을 유지하며 운영하도록 재정지원 기간을 늘려, 이를 바탕으로 회원 수 확대 및 스폰서십 확보 등 자체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스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클럽에 대해 무조건적인 재정지원 연장보다는 최소한 기준 설정으로 성과나 실적 등을 통

해 재정지원을 연장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재정지원 연장을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며 운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성과를 올리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할 것이므로 수익구조도 개선될 것입니다(58세, 박대구).

2.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구조로 개편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중앙 정부에서 사업을 설계, 제작하여 지방으로 배포를 한 형태의 사업구조로 시작되었다. 공모요강에 따라 각 지역에서 조건을 맞추어 신청을 하는 형태라 신청주체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사업신청을 한다. 하지만, 막상 공모와 심사를 통해 사업 선정이 되어 운영을 시작해보려고 하면, 각 지역의 환경과 실정에 따라 사업추진에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각 지역의 인구구성과 주요 산업, 위치 등에 따라 클럽의 회원 수, 구성과 접근성 등 클럽의 운영 관련 주요 역점사항이 달라 질 수 있는데, 전국 공통적인 운영가이드가 존재하다보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을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모를 통해 기본 조건만 충족을 시키면 클럽으로 선정을 하되, 세부적인 운영 목표나 성과 또는 실적 목표를 공공스포츠클럽이 지역 실정에 따라 스스로 설정하도록 한다면 보다 유동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사업 운영과 성과에 대한 목표를 스스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도 선정만 중앙에서 제시한 방향대로 하되, 운영과 평가

관련해서는 최대한 지역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개편해준다면 더욱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46세, 김경남).

또한 스포츠클럽의 공모부터 운영까지 각 지역체육회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한 공모요강부터 운영가이드까지 제시하여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17개 광역 시도체육회는 현재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 예산교부와 관리, 평가 등의 관리 위주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선정, 법인설립 등 초기 업무부터 각 지역 환경에 맞게끔 지역체육회 주도로 사업을 실시한다면 보다 융통성 있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도체육회는 중앙에서 맞춘 틀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뿐입니다. 클럽 운영이나 평가가 어려울 때도 중앙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역체육회가 사업을 초기부터 진행해 간다면 보다 사업의 편의성과 융통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31세, 서광주).

마지막으로 사업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각 17개 광역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 기초 지자체가 공모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완전한 지역 중심의 사업구조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사업의 1차 수혜자가 클럽 소재 지역주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클럽 소재 지자체가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들은 행안부의 평가

도 받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지역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 클럽이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48세, 조대진).

3.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명확한 역할 부여 및 지원과 관리체계 마련

공공스포츠클럽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상급기관이 부재하고 클럽의 정체성 및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은 공공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조항을 통하여 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소재 기초지자체로 하여금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하여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대한체육회, 2018a). 하지만, 관리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부실한 관리와 지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스포츠클럽은 “공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인식이 크고,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를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35세, 이부산).

공공스포츠클럽의 제도화에 대한 목소리는 이전부터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었다. 문화체육

관광부가 체육계 체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2019년도 추진한 스포츠혁신위원회도 5차 권고에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주장하며 스포츠클럽 제도화를 요구하였다(스포츠혁신위원회, 2019). 뿐만 아니라, 2019년도 국회에서도 스포츠클럽 법제화를 통한 움직임이 있었다. 스포츠클럽 육성법(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9.1.31.)과 스포츠클럽 진흥법(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9.11.12.) 등 2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육성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 클럽의 관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인증 또는 지정을 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한체육회, 2019a). 따라서 해당 내용을 담은 스포츠클럽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효력을 발휘한다면,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관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 조문이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스포츠클럽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한 관리주체 하에 지원을 받고 육성된다면, 보다 공공성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운영 자체도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40세, 김서울).

또한, 발의된 법안의 내용에 나타나 있듯이 선수육성 및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 스포츠클럽의 역할을 법령을 통해 제시하여 준다면, 스포츠클럽만의 고유성을 확립하여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스포츠클럽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스포츠클럽의 공모단계부터 클럽의 사업목

적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지역의 타 체육기관들과 기능이 중복되는 등 그 역할과 기능이 모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제화를 통해 법안 조문으로 스포츠클럽의 명확한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여 준다면 좀 더 클럽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법안의 내용에 지역체육회가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관리 등 실무·행정을 담당함을 포함시켜 유관 체육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지어 함께 담아 준다면, 더욱 확고히 클럽만의 성격을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체육회와 지역시설공단, 지역종목단체 등과의 역할 중복에 따라 지금까지 지역 내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법에서 지역체육회는 클럽의 육성과 관리를, 시설공단은 클럽 시설의 관리를 하고 클럽은 프로그램 운영 및 강습을 하며, 종목단체는 지역 내 종목 육성을 하는 등의 각 단체의 역할을 규정한다면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35세, 이부산).

특히나 공공스포츠클럽은 공공체육시설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지역 내 양질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양질의 시설 확보 또한 지역 내 경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신생단체인 공공스포츠클럽이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현행기준에서도 클럽과 같은 민간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는 있으나 지역 마다 실정 편차가 심하고, 저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스포츠클럽의 시설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제화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면 사업에 대한 지원, 관리체계 정비뿐만 아니라, 공공성 확대와 회원 증대를 통한 수익

상승 등 클럽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성패는 결국 양질의 시설확보를 통한 회원 확대와 프로그램 활성화에 달려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51세, 임전부).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준거적 선택방법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연구참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업방향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하여야한다고 제시하는데 본 사업의 실정상 이 둘은 공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둘째, 전국 229개 시군구별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문화가 다름에도 중앙 정부주도의 일률적인 정책과 방향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있는 구조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한다. 셋째, 사업 추진구조상 공공스포츠클럽의 지원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상급기관이 부재함에 따라 관리와 육성 주체가 불분명하다. 넷째, 지역 내 존재하는 타 체육유관단체들과의 기능 중복 등 사업 구조 및 설계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만의 고유한 특성과 기능이 구분되지 않아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공공스포츠클럽의 가장 큰 특수성인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클럽에 대해 지속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을 개편하는 것이다. 지속 지원을 하되, 영구적인 지속지원이 아닌 우리나라 스포츠 생태계에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지원을 하고, 또 사업평가 등을 통해 최소한의 성과를 올리는 클럽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지원·육성을 한다면 보다 사업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공모 선정, 운영 및 평가, 관리 등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중앙이 아닌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맞춤형 구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지방으로 이양하는 권한에 대한 정도는 지자체, 지역체육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율하되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지역 주도의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면 보다 지역과 주민 친화적인 공공스포츠클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명확한 역할 부여와 지원·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내 타 기관들과의 기능 중복 또는 이들과 갈등으로 인해 스포츠클럽 설립과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음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지원 근거와 역할이 법조문으로 명시된다면 보다 명확한 공공스포츠클럽만의 정체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공스포츠클럽 지원과 육성, 관리에 대한 주체를 법제화를 통해 확실히 가져간다면 내실 있는 사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어 더욱 견고한 사업추진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와 함께 보다 발전하는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모델과 개선안 제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과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화 관련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제화를 통해 실제 클럽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를 위해서 사업의 수혜자, 즉 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속감, 만족도, 운영개선방안 관련 연구도 필요하다. 회원들이 실제 정책과 국가 지원에 대한 수혜자인 만큼 이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클럽 운영이 보다 고객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스포츠클럽만의 고유하고 특징적인 사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체육시설 활용이나 전문선수 육성, 클럽 교류전 등 클럽 사업만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그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고, 클럽의 위상과 지위 또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미옥, 정유진, 허지정(2016).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지 및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체육과학연구*, 27(4), 797-809.
- 김선희, 전형상(2014). 공공스포츠클럽 사례를 통해 본 협력적 거버넌스 가능성과 한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3(4), 81-98.
- 김성국(2005).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행정조직의 역할 및 발전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남상우(2019). 조직역량 관점에서 분석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의 난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8, 323-335.
- 남상우, 이해령, 황지연(2019). 스포츠클럽 정책화를 위한 정부 주도의 시범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학습 유형화. *체육과학연구*, 30(4), 813-827.
- 대한민국 국회(2019). 의안번호 2018469, **스포츠클럽육성법안** 안민석 의원 등 10인.
- 대한민국 국회(2019). 의안번호 2023747, **스포츠클럽진흥법안** 박인숙 의원 등 11인.
- 대한체육회(2017a).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2017b).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2018a).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2018b).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2019a).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2019b).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2020).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대한체육회.
- 문화관광부(2005). **『한국형 스포츠클럽』 추진방향안**.
- 문화체육관광부(2018). **스포츠클럽 2030**. 문화체육관광부.
- 성문정(2005). **스포츠클럽제도화를 위한 법 개**

- 정안 연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오갑진, 김주호(2018). 공공스포츠클럽 내부마케팅, 조직신뢰,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 16(4), 35-44
- 우주연(2020). **코리아하이파이브 클럽의 발전과정을 통해서 본 공공스포츠클럽의 향후 발전과제와 전략**.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전원재, 임수원(2017). 한국스포츠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0(1), 149-173.
- 전원재, 임수원(2018).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정책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4, 291-308.
- 정영린(2006).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클럽스포츠 육성방안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5(6), 105-116.
- 채재성, 김현석(2000). 클럽스포츠 정착을 위한 한국 스포츠의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9(3), 217-230.
- 스포츠혁신위원회(2019). **‘일상에서 일생동안’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 스포츠혁신위원회.
- 황수현, 김민, 서희진(2015). 종합형스포츠클럽의 운영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웰니스학회지**, 10(4), 73-82.
- Denzin, N. K. (1989). *Interpretive biography* (Vol. 17): Sage Publication, Inc.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Vol. 75). Sage Publication, Inc.
- Maxwell, J. A. (2005).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Sage Publications, Inc.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논문투고일 : 2020년 7월 14일
논문심사일 : 2020년 7월 22일
게재확정일 : 2020년 8월 20일

ABSTRACT

The Structural problems of Public Sports Club project and improvement plans

Kim, Sung-Ha(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structural problems of public sports club project and seek for improvement plans. The Public Sports Club project is the project subsidized and promoted by the Ministry and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KSOC).

As such, a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is purpose. Twelve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lected via criteria group method.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and it was then analyzed using textu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our structural problems of the public sports club project were figured out by this study. Firstly, there was a dilemma for the business direction between public nature and profitability. Secondly, the project is conducted and promoted by central government and organization indiscriminately without the peculiarity and distinct characteristic of local circumstances. Thirdly, there was no specific and independent management agency which supports and supervises the public sports clubs. Lastly, lack of identity of the public sports clubs made no specialty to the public.

Here are the improvement plans to the problems. Firstly, the business structure should be modified as the subsidy lasts three to five more years continuously. With the ongoing subsidy, the public nature of the clubs will be stronger and it will also strengthen platform to reinforce profitability. Secondly, there should be another modification of the business structure regarding regionalism. The consideration towards flexibility concerning regionalism can make difference for more sports club-friendly direction and procedure of the project. Lastly, the legislation supporting sports clubs should be done as soon as possible. With this legal support, public sports clubs project will solve the core structural problems and have clear roles and functions to promote sports to the public.

Key words : Public Sport Clubs, Project Structure, Problems, Improvement Plans,
Qualitative Research, In-depth Interviews